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망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음 5월 27일) 제183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이렇게 큰 양과 처음 봐요” 20일 전주시 완산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열린 ‘생활 속에 숨겨진 양파와 마늘 이야기’ 특별전시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마늘과 양파를 살펴보고 있다.

전북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유치 확정

정동영 의원 “기반 취약한 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마련”
사업비 123억원 투자 덕진구 만성도시개발구역내 조성

전북도가 지역이 보유한 우수한 문화유산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기업과 산업 육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20일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근대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 등 한국 문화유산의 분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그동안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콘텐츠 산업 기반이 취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콘텐츠산업 육성의 매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한 7개 광역자치단체(시·도)에 대한 심사결과, 전북도의 ‘전북 콘텐츠기업 육성센터(H.A.N.C)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해 갈 수 있는 지역별 특화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기업간 협업과 청년 콘텐츠 스타트업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부산, 대구, 전남 등 7개 시·도가 사업신청을 하는 등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전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콘텐츠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해 사업 선정에 매우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전북도, 정동영 의원, 유성엽 의원이 수

차례 대책회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공조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48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북도는 도비 75억원을 포함하여 총 123억원의 사업비를 기반으로 2018년 3월까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도시개발구역내에 연면적 6,40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전북 콘텐츠기업 육성센터(H.A.N.C)를 조성하게 된다.
2018년 3월에 새롭게 조성될 ‘전북 콘텐츠기업 육성센터(H.A.N.C)는 전북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융합형 윈스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의 전진기지가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콘텐츠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교육부 “서남대 인가 취소 검토”

교육부는 20일 자진 폐교를 신청한 남원 서남대에 대해 인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구제 단축이 제출한 자진폐교 신청서를 오후 3시까지 접수했다”며 “자진폐교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자진 폐교 관련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대 현 이사가 아닌 종전 이사의 자진폐교 신청서 제출이 적법한지부터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폐교는 법적으로 인가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폐지 사유와 요건, 폐지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남대 인가취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시이사회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중인데다 학내의 반발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가취소를 검토하고 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통령 공약’ 혁신도시 제3금융도시 조성 논의

도, 금융산업발전위 개최
금융중심지 지정 등 중심
구체적 실행방안 의견 제시

전북도는 ‘전북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2016년 6월 22일 설치한 위원회로 당연직 위원 3명과 외부 금융전문가 18명(도내 10, 수도권 9)이 위촉됐다.
이번 회의는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핵심공약이 발표된 후 올 들어 처음 개최한 회의로 수도권 위원 절반이 다 참여한 가운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진홍 정무부지사(위원장)는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전북에서 금융도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도민의 열망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후 탄력을 받게 됐다”며,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위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여 제3의 금융중심지 기틀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해성 투자유치과장은 기금운용

본부 이전추진경과와 전라북도금융산업육성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위원들의 전북금융현안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안공약과제를 브리핑했다.
본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연기금 연계 산업 및 농생명특화 금융산업 육성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제도마련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에탁결제원 박임출 전무이사는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은 지역정체성의 힘이 컸다”며 “이전기관과 함께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잘 활용하여 금융인프라 지원사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준 교수(부위원장)는 “금융 비즈니스가 전북에서 불편이 없도록 기금운용본부 외지방문객 편의제공에 우선 협사를 하고 연기금전문대학원은 설립·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역대학과의 상생방안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농생명 관련 금융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방안▲증권사 지역본부 유치방안▲금융타운 민간유치방안▲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이 이뤄졌다. /김진성 기자

여야, ‘최순실 일가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20일 최순실 일가의 부당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뜻을 모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두로 한 여야 의원 23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 최씨를 비롯한 국정농단행위자의 부당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 몰수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최씨 일가의 부당수익 및 부당수익 유래재산의 소급환수,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조사위에 대한 입수·수색 및 검증권 부여 등 내용이 담겼다.
안민석 의원은 주도한 이번 모임은 매주 화요일 조찬모임을 통해 법안 조율 상황과 최씨 일가 재산추적 현황 등을 공유한다. 모임 참여 의

원들은 법안 공동 발의를 목표로 여야 의원들의 추가 참여를 지속적으로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모임에서 최씨 일가 재산 원천지금이 박정희 정권 시절과 박근혜 정권 시절 체계적으로 형성·관리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박정희 정권 시절 석유도입 차액, 대일청구권 자금, 베트남 참전·전사자 보상금 등이 이후라 전 중앙정보부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관리되며 최씨 일가 재산의 원천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에선 유영재단 및 정수장학재단 관련 자금과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 금고 자금, 구국봉사단 관련 재산 등이 고(故) 최태민씨와 최순실 모친 임신씨 등 최순실 일가로 흘러들어가며 부정 축재됐고, 현재 부동산 및 현금·예금 등 형태로 국내외에 보관돼 있다는 게 안 의원 주장이다. /뉴스시스

매일 INDEX
3면 - 법원행정처, 안전판 판결문 제공 4면 - 드론축구 세계화 ‘첫 발’ 6면 - 가랑기 좋은 보리 ‘흑누리’

단풍미인소핑몰에서 펼쳐지는 한발 빠르게 만나는 건강한 여름!

신선함이 팡팡 터진다! <계절농산물 판매>

- 통나무에서 열리는 달콤한 열매 **오디**
- 무더운 여름 기운이 옥색 **복분자**
- 타일지 선정 10대 슈퍼푸드 **블루베리**
- 달고 맛있는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단풍미인소핑몰은 정읍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365일 100% 무료배송
택배비 100% 지원(정읍시청)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매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

모든제품 100% 전국 어느 곳이나 우체국 택배로 무료배송

네이버, 다음에서 단풍미인소핑몰을 검색하세요!
<http://danpoongmall.jeongeup.go.kr>
문의 전화 : 080-535-4345(무료), 063-532-4345